

제 목	국 문	흡연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영 문	Association of Depression with Smoking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엄상화, 배기택, 김성천, 이채언, 신해림, 김성준		
	영 문	S.H.Ohm, K.T.Pai, S.C.Kim, C.U.Lee, H.R.Shin, S.J.Kim		
분 야	건강관련행태		발 표 자	엄 상 화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우울증은 정신과영역에 있어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살이나 공격적인 성향 등의 인격장애가 동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술과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많은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울증이 이러한 흡연을 지속 또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울증척도를 이용하여 흡연자들에서 고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알기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인제의대 부속백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1)인구사회학적 설문과 2)음주에 대한 일반설문, 알콜의존성을 알기위한 미시간대학 설문을 한글화한 설문, 3)흡연에 대한 일반설문과 니코틴의존성에 대한 설문, 그리고 4)우울증 판정을 위한 Beck's 우울증문항을 한글화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1993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문지를 받아 자가 기입한 남자 907명으로 설문작성이 미비한 16명을 제외한 총 891명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통계분석은 SAS(version 6.08)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이, 흡연량, nicotine의존성, 음주량, 알콜중독유무등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X-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를 보면 35세 이하 63명(7.1%), 36세에서 45세가 261명(29.3%), 46세에서 55세가 459명(51.5%), 56세 이상 108명(12.1)으로 나타나 40대 중반이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평균 46.7±7.2세).

술과 담배의 정도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누어 연령별로 보면 흡연의 정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P<0.01$ ), 음주의 경우 중등도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나 고도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nicotine의존성, 알콜중독, 우울증을 알아보는 설문에 따른 분류도 나이에 따라 양성율이 높아짐을 보였다( $P<0.01$ ) 연구대상집단에서 흡연을 하지않는 사람은 207명(23.2%), 흡연은 하나 의존성이 없는 사람은 243명(27.3%),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441명(49.5%)로 나타났다.

흡연정도에 따른 위험도는 니코틴 의존성이 없는 경우 나이(Odds ratio;이하 O.R 1.12Confidence interval;이하 C.I 1.03-1.71), 음주정도(O.R 1.20, C.I 0.86-1.67), 우울증 (O.R 2.76, C.I 2.00-3.83)으로 나타났고, 니코틴 의존성이 있는 경우는 나이(O.R 1.02, C.I 0.99-1.05), 음주정도(O.R 1.05, C.I 0.77-1.44), 우울증(O.R 3.29, C.I 2.12-5.11)으로 나타났다.

### 4. 고찰

흡연에 의한 건강장애는 거의 모든질병이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연자가 늘고 있음에도 전체 흡연율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연교육은 국민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금연방법에 관계없이 40%정도만 금연에 성공하고 2년뒤까지 금연을 유지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집단을 알아내는 것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초가 되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위험집단을 가려내는데 우울증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한정된 집단이고 그 연령 또한 높아 직접적인 적용을 할 수 없지만 흡연자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으로 금연에 대한 보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여 고위험집단을 선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